

회 의 록

□ 회 의 명 :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 일 시 : 2026. 9. 17.(목) 12:00

□ 장 소 : 여수MBC 4층 대회의실

□ 출석위원 : 강문식 위원장,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안인수 위원,
박소정 위원, 박경숙 위원, 김종은 위원, 박배연 위원,
이현규 위원, 김대희 위원, 최태민 위원(이상 11인)

□ 불참위원 : 박종일 위원, 이지호 위원, 천현진 위원(이상 3인)

□ 여수MBC : 대표이사 사장, 경영심의센터장, 방송사업센터장,
보도센터장, 콘텐츠센터장(이상 5인)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 회의발언내용

○ 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저녁으로는 조금씩 가을 기운이 느껴지지만 아직 낮에는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시청자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우리 지역에서는 순천대 국립의대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이달 초 개막한 여수세계섬박람회도 기대와 함께 여러 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역의 큰 현안일수록 기대나 주장만 전달하기보다는 실제 상황을 꼼꼼하게 살피고 지역민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충실히 전하는 것이 지역방송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수MBC의 보도와 프로그램에 대해 위원 여러분의 솔직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근 MBC 본사 사장 공모에 도전한 대표이사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수MBC와 전남 동부권 지역방송 발전에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이사님의 말씀을 들겠습니다.

○ 대표이사

감사합니다.

본사 사장 공모 절차를 마치고 다시 회사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공모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현재 지상파방송과 지역MBC가 모두 쉽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앞으로 지역MBC의 지속가능성과 역할에 대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말씀도 잘 듣고 회사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제 부서별 주요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복현 콘텐츠센터장님 설명을 들겠습니다.

○ 콘텐츠센터 편성제작팀장

8콘텐츠센터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에는 여수세계섬박람회와 함께 제20회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중계방송이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10월 4일 폐막일까지 아시안게임 중계방송과 편성 변경으로 일부 정규 프로그램이 결방될 예정이며, 서울 중계방송 편성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여수세계섬박람회 특별기획 「금오도 비렁길」은 9월 3일 방송의 날 저녁 9시에 방송했습니다. 다음 날 재방송까지 진행했고, 약 한 달간 이어온 섬박람회 특집 33편 연속 편성도 마무리했습니다.

「금오도 비렁길」은 유튜브에 UHD 고화질로 공개됐으며 약 15만 회 정도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특선을 통한 전국방송도 예정돼 있습니다.

지난해 지역MBC 공동으로 제작한 「한국의 둘레길」 역시 추석 특집으로 전국 편성돼 9월 24일과 25일 아침 시간대에 1·2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1948 그녀들」은 제53회 한국방송대상 라디오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9월 3일 방송의 날 시상식이 생방송됐고 송유라 아나운서와 이선화 작가가 참석해 수상했습니다.

제16회 광양만권 화합의 가족콘서트는 지난 9월 12일 여수MBC 공개홀에서 예선을 진행했으며 19개 팀, 123명이 참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9개 팀을 본선 진출팀으로 선정했고, 본선은 9월 19일 오후 7시 여수 해양공원 특설무대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추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는 순천 오천그린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중계방송과 관련 기획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및 반영 사항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운영과 행사 의미에 대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관련해 「어바웃 우리동네」에서 개막 관련 내용과 ‘마을버스 타고 만나는 개도’ 1·2편 등을 방송했습니다. 향후 여수 섬 여행 관련 콘텐츠도 추가 제작할 예정입니다.

「라디오전망대」에서도 섬박람회 사전 점검부터 준비상황, 개막 이후 운영 현황과 흥행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균형발전과 주요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 달라는 의견과 관련해서는 순천대 국립의대 문제를 중심으로 총장 인터뷰와 뉴스브리핑, 「로컬썰전」, 「라전법정」 등을 통해 후보 선정 의미와 지역 갈등, 목포대 소송 문제 등을 다뤘습니다.

또 독립영화와 지역 문화콘텐츠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는 의견을 반영해 9월 7일 독립영화 감독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시청자 의견 및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조치사항입니다.

지난 8월 17일 휴일 편성 과정에서 「라디오전망대」 시간대 서울 프로그램 수중계 전환 중 기술적인 문제로 약 1분 30초간 무음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 점검을 통한 재발 방지와 사고 발생 시 해당 사실 고지 및 사과 등 업무절차를 개선하도록 개선계도를 받았습니다. 관련 사항을 수용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광수 보도센터장님의 설명을 듣겠습니다.

○ 보도센터장

보도센터 주요 취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시청자위원회 개최시점에 맞춰 직전 회의 이후부터 현재까지를 기준으로 주요 취재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여수세계섬박람회 개막이었습니다.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충분히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9월 5일 개막 당일 뉴스 데스크를 특집으로 구성했습니다. 현장 분위기와 주요 콘텐츠, 부행사장, 개최 의미와 준비 과정 등을 살폈고 광주·목포·여수MBC 3원 방송으로 제작했습니다.

개막 이후에는 초기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관람객 실적과 편의시설·콘텐츠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점도 점검했습니다. 남은 행사기간 동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제시하고 행사가 충실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공모 과정도 주요 취재 대상이었습니다.

순천대와 목포대가 의대와 대학병원 문제를 놓고 대치한 과정, 독자 신청 논의, 통합특별시가 후보를 선정하게 된 과정과 이후 논란 등을 지속적으로 취재했습니다.

통합특별시 출범 이후에는 조직개편 문제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세 권역의 조직 배분 문제를 비롯해 정부의 통합지원금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권역별 배분과 활용 방향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지역 정치권의 상황과 동부권 정치권의 존재감 문제도 취재했습니다.

특별기획 「물전쟁, 반도체 붐의 그늘」은 5편 연속 보도했습니다.

대규모 산단과 산업시설 유치가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동시에 막대한 용수 수요를 발생시키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하천과 하구 생태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개발 과정에서 물 문제를 보다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기획했고, 5편 보도를 일단 마무리하되 추가 취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향후 주요 보도 운영 방향입니다.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전남 동부권 핵심 국책사업의 진행상황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 고흥 우주산업 인프라, 전남 국립의대 등 주요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명절 기획보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에게 달라진 지역 모습과 앞으로 달라져야 할 과제를 보여주고, 지역민에게는 최근 지역사회 변화와 현안을 정리해 전달하는 방향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가볼 만한 곳과 여수세계섬박람회, 지방선거 이후 변화, 지역 주요 현안, 드론을 활용한 달라진 지역 모습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중반기 성과를 분석하고 행사 종료 이후 시설물과 인프라 활용 방안도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또 10월에는 제78주기 여수·순천 10·19사건을 맞아 관련 기획보도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전 회의 의견 반영 사항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동부권 균형발전과 관련해 조직개편, 통합지원금, 동부청사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순천대·목포대와 국립의대 문제 역시 공모 진행과 후보 선정, 지역별 여론과 후속 논란을 지속적으로 다뤘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9월 5일 특집 뉴스를 진행했고 개막 이후 흥행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여수산단 사업재편과 주력산업 구조전환 문제는 「물전쟁, 반도체 붐의 그늘」과 산단 구조조정, 전기요금 차등제 등을 통해 다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다음은 정용우 방송사업센터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9월 주요 추진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뮤지컬 「그날들」을 공연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유료 공연시장이 침체돼 있어 어려움은 있지만 지역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형 뮤지컬인 만큼 잘 준비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 청소년봉사상도 9월 말부터 공모를 시작해 11월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운영방식 변경을 검토했으나 라이온스협회와 협의해 지난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모집 분야는 봉사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지역발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한 청소년 사례를 폭넓게 발굴하려고 합니다.

정채봉문학상은 약 150편이 접수돼 1차 심사를 통해 10편 정도로 압축했으며 현재 최종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31일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연극 「쉬어매드니스」를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예울마루 소극장에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조애숙 위원

지난 4년 동안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며 여수MBC에 많은 애정을 갖게 됐고, 유익하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견을 귀담아듣고 반영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먼저 「1948 그녀들」의 한국방송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9월 3일 방송된 「금오도 비렁길」도 매우 인상 깊게 봤습니다. 기획과 영상, 멘트가 잘 어우러져 금오도에 가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하고, 이미 다녀온 사람에게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 문제입니다.

최근 여수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순천이나 광양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천은 교육·문화도시라는 이미지가 있고, 광양 역시 주거와 출산지원 정책 등에서 젊은 세대에게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여수는 산과 바다 등 뛰어난 관광자원을 갖고 있지만 정주여건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습니다.

여수 인구가 26만 명 아래로 내려간 이후 감소속도도 상당히 빠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시에서도 인구감소 대응 전담조직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수MBC에서도 인구감소와 정주여건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여수·순천·광양의 생활권 문제입니다.

행정구역은 나뉘어 있지만 이미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 지역이 서로 인구를 빼앗고 빼앗기는 경쟁을 반복하기보다 동부권 전체를 하나의 광역 생활권으로 보고 각 도시의 장점을 살려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MBC에서도 여수·순천·광양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바라보는 연속기획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 발전방안을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청소년 문제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장에서 청소년 생활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흡연이나 생활규칙 위반 등을 두고 지도와 보호 사이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세대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정책이나 예산에서는 상대적으로 뒤로 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문제를 꾸준히 살피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인구감소는 지역사회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전남 동부권 지자체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천지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연 위원

지난 4년 동안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처음보다 여수MBC를 훨씬 더 많이 보고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동안 좋은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뉴스는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안을 한 번 보도하고 새로운 이슈로 넘어가면 이전 문제가 금방 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정 분야의 중요한 현안은 단발성 보도보다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데이터를 축적해 장기적으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물전쟁」 연속기획도 그런 점에서 의미 있었다고 봅니다.

국립의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천대가 후보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여수MBC가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직 목포대 측의 소송 등 여러 변수가 남아 있는 만큼 후보 선정으로 끝났다고 보기보다 앞으로도 전남 의료체계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역시 법적으로 통합됐다고 해서 지역 간 이해관계나 인식이 단기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긴 시간에 걸쳐 균형과 갈등 문제를 살펴야 하는 만큼 동부권을 대표하는 지역방송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순천·광양도 각각 강점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구감소를 개별 도시만의 문제로 보기보다 동부권 전체의 인구와 성장 가능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지역이 서로의 장점을 공유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방송이 연결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인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인수 위원

최근 여수산단 현황과 사업재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초에는 국제정세 영향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화학 제품가격도 함께 올랐고 원료 도입시점과 제품가격 사이의 시차효과 등으로 상반기 일부 석유화학 기업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원유 정제시설 피해와 원유·나프타 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경기침체와 수요감소로 제품가격은 원료가격 상승만큼 오르지 않아 석유화학 기업은 생산할수록 수익성이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생산능력이 국내 수요보다 커 수출을 통해 성장해 왔지만 중국의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되면서 과거와 같은 경쟁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석유화학산업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기초소재를 전적으로 해외에 의존할 경우 국가 산업안보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내 수요와 국제 경쟁력을 고려해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으로 산업구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수지역에서도 4개사를 중심으로 사업재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성공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참여 기업 간 협의입니다. 기업별 이해관계가 달라 쉽지 않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은행 등 관계기관의 조정과 지원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는 행정지원입니다.

사업장을 통합하고 시설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각종 인허가와 기반시설 변경이 뒤따릅니다.

과거 울산지역의 대형 프로젝트에서는 지자체가 기업 현장에 직접 찾아가 행정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에서도 사업재편 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지역 언론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MBC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평일 관람객이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온라인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안타깝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도 공연과 체험·야간 프로그램 등을 보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 홍보보다 현장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왜 관람객이 오지 않는지, 어떤 부분이 개선돼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개선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의 최종 평가는 이후에 하더라도 지역을 대표하는 행사인 만큼 남은 기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소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정 위원

최근 여수MBC 보도계획과 실제 뉴스를 보면서 지역뉴스가 매우 풍성해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반도체 붐의 그늘」과 같은 기획이 좋았습니다.

반도체산업이 지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에서 산업개발 이면의 용수 문제까지 함께 짚어준 점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순천·광양의 생활권 협력 문제도 지속적으로 다뤄주셨으면 합니다.

의대 문제 등 여러 지역 갈등을 보면서 세 지역이 보다 일찍 생활권 차원의 협력을 진행했다면 갈등을 줄일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통이나 생활권 협력 같은 내용을 일회성 보도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으로 다뤄주면 좋겠습니다.

또 사회 전반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갈등이 시민사회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가 서로 편을 나누는 분위기도 강해지고 있는데, 지역민들이 공통적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뉴스와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퇴직 공무원들이 그림책을 만들고 지역 어르신들과 나누는 활동을 소개한 보도처럼 지역에서 조용히 나눔과 성장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많이 소개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후문제 역시 지속적으로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홍수와 이상기후를 보면 기후위기가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산업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지역민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대응방법도 꾸준히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또 기자별로 자신만의 전문 분야를 갖고 하나의 문제를 장기적으로 파고드는 심층기획이 활성화되면 좋겠습니다.

일상적인 보도자료를 전달하는 수준을 넘어 기자별 대표 기획이 만들어진다면 보도의 깊이도 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스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내용을 「라디오전망대」가 심층적으로 보완하고 있고, 「어바웃 우리동네」도 지역의 따뜻한 이야기와 생활정보, 섬박람회 관련 콘텐츠를 잘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경숙 위원

최근 그림책 모임이 방송에 소개된 이후 주변에서 뉴스에서 좋은 이야기를 접하니 기분이 좋았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역사회에는 부정적인 사건보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좋은 이야기가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사건·사고뿐 아니라 일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꾸준히 소개하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일상 이야기를 홈페이지나 다른 방식으로 제보하고, 그 가운데 의미 있는 사례를 방송에서 소개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세계 기후행동의 날을 맞아 순천에서도 동천을 중심으로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만물의 의회’를 통해 사람뿐 아니라 벌, 고래, 나무 등 자연의 입장에서 기후위기를 바라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단순히 문제로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가 해결방법을 찾아가는 활동도 함께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종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은 위원

먼저 여수의 섬과 자연을 잘 보여준 「금오도 비렁길」을 좋게 봤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역시 남은 기간 콘텐츠를 보강해 지역의 자연자원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회사에서 진행한 한가위 온정 나누기 행사를 취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물전쟁」 용수 관련 기획을 5편에 걸쳐 다뤄주신 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의 경우 하루 약 7만 1천 톤의 용수를 사용하고 있고 이 가운데 약 1만 5천 톤을 폐수 재활용시설을 통해 다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과거 심각한 가뭄 때는 공장 가동 중단까지 우려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향후 반도체산업 등 대규모 산업용수 수요가 증가할 경우 기존 산업도 용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이번 보도가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서산 대산지역의 경우 국가가 해수담수화 시설을 구축해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용수 문제의 대안을 취재할 때 이러한 타 지역 사례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해서는 SNS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왜곡되거나 조롱의 대상으로 이용되면서 선의의 참여자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도 비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LNG 발전소 문제입니다.

과거 LNG 발전은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정의 전환 발전원으로 평가됐지만 최근 정책기조 변화로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상당한 비용이 투입된 사업은 정책 변화에 따라 큰 매몰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LNG 발전의 필요성과 함께 탄소포집이나 재생에너지 연계 등 보완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 위원장

다음은 박배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배연 위원

9월에도 주요 현안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 이슈를 폭넓게 다뤄주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물전쟁」 섬진강 연속기획은 지역방송의 역할을 잘 보여준 보도라고 생각합니다.

연속보도를 통해 이 문제가 단순히 산업용수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업용수와 생활용수, 하구 생태계와 어민 생존권 등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 후속보도에서는 각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섬진강 물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산업용수 확보대안은 무엇인지, 하구 생태계와 어민 생존권은 어떻게 함께 보호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이현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현규 위원

석유화학산업 상황은 앞서 충분히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고용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 역시 신입사원을 채용하지 못한 지 3~4년 정도 됐습니다.

기존 사업을 정리하면서 발생한 인력을 정년퇴직자 자리에 재배치하거나 다른 부서로 전환 배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부서에서 정년까지 근무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40~50대 직원

도 새로운 부서로 이동해 업무를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상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석유화학 사업재편 과정에서 정부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면서도 고용감소는 최소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산업위기와 고용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기 때문에 이 두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업 역시 지역사회에서 고용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정부사업으로 ‘K-뉴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대 청년 약 50명을 선발해 약 3개월 동안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 오피스 프로그램, AI, 6시그마 등 취업에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취업을 전제로 한 과정은 아니지만 여수상공회의소에도 관련 내용을 알리고, 지역 산단 기업에서 인력이 필요한 경우 교육생들을 관심 있게 봐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향후 취업박람회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기업의 여건이 나아져 이러한 교육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대희 위원

동부권 상생·통합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광역교통이나 지역상품권 같은 생활권 차원의 협력을 다뤘다면 앞으로는 산업 분야로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용수, 전력과 전력계통망, 산업단지 용지 문제는 중요합니다.

동부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일반산업단지보다 국가산업단지 성격의 산업기반이고, 용수나 전력계통 역시 지자체보다 중앙정부 정책과 직접 연결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영역을 중심으로 여수·순천·광양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 분야도 동부권 공동협력의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등교육과 대학뿐 아니라 최근 논의되는 과학고나 과학인재학교 같은 인재양성 분야도 동부권이 공동으로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전남 동부권의 독자적인 정책연구 기능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광주권이나 전남 서부권과 산업구조와 정책수요가 상당히 다릅니다.

현행 제도상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자체 정책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순천·광양이 개별적으로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면 복수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정책연구 기능을 운영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석·박사급 연구인력 약 30명, 연간 예산 약 50억 원 정도 규모로 공동연구기능을 운영한다면 산업·인구·교육·의료·환경 등 동부권 특성에 맞는 정책대안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의대 문제도 장기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이 동부권에 들어오게 된다면 의료 인프라가 특정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문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순천에 기존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집중돼 있는 만큼 향후 대학병원이 들어설 경우 공공의료 기능을 여수나 광양과 적절하게 분담해 동부권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에서는 청년인구, 특히 여성 청년의 유출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은 중화학산업 중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남성 일자리는 존재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여성 청년이 취업할 수 있는 사무·관리·사회복지·비영리 영역의 일자리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결국 많은 여성 청년이 지역을 떠나게 되고, 한번 떠난 뒤 다시 돌아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현재 정부 일자리 지원정책도 제조업 중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나 NGO, 비영리·공공영역에서도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 단기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청년, 특히 여성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여수MBC에서도 청년인구 감소 문제를 다룰 때 여성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다음은 최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태민 위원

최근 「금오도 비렁길」 방송을 인상 깊게 봤습니다.

순천시의회사회 회원 약 500명이 매년 봄과 가을에 야외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번 가을에는 금오도 비렁길 제3코스로 가기로 결정했고 회원들의 반응도 좋았습니다. 방송을 통해 지역 콘텐츠가 실제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UHD 고화질로 보면서 휴대전화나 일반 TV보다 큰 스크린에서 볼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남 동부권에는 독립영화나 예술영화, 지역 다큐멘터리 같은 비상업적 영상물을

상시 상영할 공간이 매우 부족합니다.

광주에는 독립영화 상영공간이 있고 다른 지역에도 작은 영화관 등이 있지만 여수·순천·광양에는 이러한 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여수MBC에서도 향후 문화공간을 마련하거나 활용할 기회가 있다면 독립영화나 지역 다큐멘터리를 상영할 수 있는 공간도 참고해 보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또 최근 순천지역 약국에서 초등학생에게 감기약 대신 피임약을 판매했다는 내용의 여수MBC 보도를 봤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해당 약이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 아니라 일반의약품인 경구피임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의 주장이 서로 다른 상황에서 보도 내용만 보면 약사가 잘못된 약을 제공해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학생이 실제 어떤 약을 요구했는지, 약사의 설명 과정은 어떠했는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후속 취재나 보완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측에서 추가로 설명하거나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도센터장

먼저 여수세계섬박람회와 관련한 악성댓글 및 여수시 대응 문제는 현재 취재하고 있습니다.

공공행사에 대해 시민이 비판적이거나 풍자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는 만큼 여수시가 어떤 게시물이나 댓글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행사 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참여자의 콘텐츠까지 영향을 받는 사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김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산 대산지역 산업용수 사례도 후속 취재에 참고하겠습니다.

「물전쟁」 후속 보도에서는 다른 지역의 대규모 산업시설이 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폭넓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이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K-뉴딜 아카데미도 기업이 청년을 대상으로 산업현장 교육을 제공하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재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최태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 피임약 판매 보도 역시 내부적으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보자인 부모 측은 자녀가 감기 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했고 잘못된 약을 복용해 응

급실까지 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약사 측에서는 학생이 정확한 제품명을 말해 해당 제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입니다.

보도 이후 약사 측 주장과 여러 의견이 제기돼 현재 학생 부모와 약사 측 양쪽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후속 취재나 보완이 필요한지 검토하겠습니다.

○ 조애숙 위원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하다 보면 부모가 자녀의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주장이나 학생의 외형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상황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도센터장

잘 알겠습니다.

○ 방송사업센터장

청소년봉사상과 관련해 위원님들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 추천되는 청소년이 다소 한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에서 봉사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을 성실히 하고 있는 학생이나 단체를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행사 운영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마무리에 앞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조애숙 위원님과 천지연 위원님께서서는 오는 10월 16일자로 시청자위원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다음 회의가 10월 22일 예정돼 있어 오늘이 두 분께서 함께하시는 마지막 시청자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4년 동안 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시며 여수MBC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하겠습니다.

〈조애숙 위원, 천지연 위원 감사패 전달〉

○ 위원장

오늘도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앞으로 여수MBC의 보도와 프로그램 제작에 잘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오늘이 마지막 회의인 조애숙 위원님과 천지연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난 4년 동안 여수MBC와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의견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수MBC에 변함없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면 추석 명절입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가족과 함께 편안한 명절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9월 시청자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